

겨레말큰사전

2016 01

누리판



우리말 보물찾기 · 우리말 돋보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북말 북남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우리말 보물찾기

모두에게 주는 선물

- 이상배 / 동화작가

욕심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싸우게 됩니다. 친구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는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순우리말의 아름다운 동화 한 편을 읽으면서 욕심을 내려놓아 보세요.



옛날에 한 사람이 처음으로 이 땅에 살려고 왔습니다. 땅은 끝 간 데 없이 넓고 넓었습니다. 사람은 외롭고 쓸쓸하고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갈까?”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걱정했습니다. “나 혼자로는 못살아요.”

언덕에 올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숲 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술렁거렸습니다. 나무들은 사람을 만난 것이 기뻐고 그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이며 서로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나무들이 이파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사람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마실 수도 있고 단물로도 만들 수 있는 물을 드리겠소.”

잎이 무거진 단풍나무가 말했습니다.

“자, 잠깐만 비켜 보세요.”

밤나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후드득!”

소리를 내며 알밤들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또 있어요. 나도 당신이 배가 구뽏 때 먹을 수 있는

아람을 드리겠소.”

키가 큰 나무가 빨간 열매를 수북이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의 느릅나무가 말했습니다.

“열매를 주워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하겠지요. 내 부드러운 껍질을 벗겨서 바구니를 만들고 끈도 만들어 보세요.”

“고맙습니다, 나무님들.”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여러 나무 친구들이 생겼으니,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은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세상을 살펴보고, 또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습니다.

넓은 숲을 가로질러 가자 큰 강이 앞을 막았습니다. 푸른 물이 넘실거리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사람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강가에 서있던 자작나무가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주겠소. 어서 내 껍질을 벗겨서 느릅나무를 묶으시오. 그러면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은 자작나무가 가르쳐준 대로 배를 만들어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강을 건넌 때는 해가 저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이 산에서 밤을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으으, 캄캄하고 추워!”

사람은 머뭇 속에서 덜덜 떨었습니다.

그때 산등성이 위로 온달이 떠올랐습니다. 메슥이 환해졌습니다.

“저런, 저런!”

미루나무가 추위에 떠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그네님, 나는 불을 지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서 내 가지를 꺾어서 서로 비벼 보십시오.”

사람은 미루나무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곧 불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온몸이 따뜻해지자 하품이 자꾸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군.”

여태껏 지켜보고 있던 소나무와 참나무가 소곤거렸습니다.

두 나무는 이파리를 수북이 떨어뜨렸습니다. 나무 밑은 폭신한 잠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 위로 스르르 쓰러졌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사람은 모닥불 옆에서 귀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사람이 잠에서 깨났을 때, 세상은 눈부시게 햇귀가 빛났습니다.

나그네는 저절로 생긴 웅달우물에서 얼굴을 씻고 나무들을 울려다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나무님들!”

사람은 고마운 마음으로 나무들을 울려다보았습니다.

“나무님들, 이 고마운 선물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당장 나는 줄 것이 없으니...”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런 도움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는 것만이 우리의 행복이니깐요.”

큰 나무들과 보드기들이 푸른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이 숲을 오래도록 간직하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은 누구 한 사람의 아람치가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다 같이 누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낭비하거나 파괴하지 마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나무님들!”

사람은 나무들과 약속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나무들이 한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후손들은 오직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며,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 땅의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이 남겨 두었던 것입니다. 78



*동화 속의 순우리말 뜻

단물: 단맛이 나는 물.

구뽏다: 배 속이 허전하여 자꾸 먹고 싶은 것.

아람: 밤이나 상수리 같은 열매가 익어 저절로 떨어질 정도가 된 상태. 또는 그런 열매.

온달: 조금도 이지러진 데 없는 둥근달.

메슥: 산에 나무가 무거진 숲.

모닥불: 잎나무나 검불 따위를 모아 놓고 피우는 불.

잠자리: 잠을 자기 위해 사용하는 이부자리나 침대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귀잠: 아주 깊이 든 잠.

햇귀: 해가 처음 솟을 때의 빛.

웅달우물: 앉아서 바가지로 물을 퍼낼 수 있도록 작고 오목한 우물.

보드기: 크게 자라지 못하고 마디가 많은 어린 나무.

아람치: 개인이 사사로이 차지하는 몫.



| 이상배 |

동화작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도서출판 좋은꿈 대표이다. 대한민국 문학상, 윤석중문학상, 방정환문학상, 한국동화문학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저서로는 『책읽는 도깨비』, 『책귀신 세종대왕』, 『부엌새 아저씨』, 『우리말 동화』, 『우리말 바루기』 등이 있다.

겨레말큰사전 사업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2016년에도 뜻하시는 일들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PDF인쇄 | 지난호보기

겨레말큰사전 누리판

2016
01



우리말 보물찾기 · 우리말 돋보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우리말 돋보기

몸매나 살과 관련된 우리말

- 박남일 / 저술가

“몸피가 작은 민영수가 깍짓동만 한 사내한테 질질 끌려 나왔다.”

송기숙의 소설 『죽두장군』에 나오는 구절이다. 여기서 ‘깍짓동’은 콩이나 팥의 깍지를 줄기가 달린 채로 묶은, 원통 모양의 큰 단을 뜻한다. 흔히 허리가 굵고 뚱뚱한 사람을 이에 빗대어 놀림조로 깍짓동이라 이르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말로 ‘절구통’도 있다. 또 ‘드럼통’이니, ‘우체통’이니 하는 속어로 뚱뚱한 사람을 놀리기도 한다. 다만 깍짓동이 앞 예문처럼 우람한 남성의 몸집을 빗대어 쓰는 데 비하여 절구통, 드럼통, 우체통 따위는 주로 여성의 몸집을 비하하는 뜻으로 흔히 쓰인다. 이밖에 피동피동 살이 찐 사람을 ‘양돼지’에 빗대기도 한다. 토종 돼지보다 서양 돼지가 훨씬 살집이 좋다는 데서 생겨난 말로 보인다.



마른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도 있다. 흔히 몸이 훌쩍한 사람은 ‘훌쩍이’라 한다. ‘뚱뚱이’에 상대되는 말이다. 살가죽이 쪼그라져 볼을 만큼 마른 사람은 ‘빠빠’라 부른다. 과자 이름으로 상품화되어 널리 쓰이는 말이기도 하다. 이와 비슷한 ‘말라쟁이’도 있다. 바짝 말라서 갈빗대가 드러나 보이는 사람은 ‘갈비씨’, 또는 ‘갈비’라 한다. 겨울나무처럼 앙상하게 마른 사람을 ‘앙상쟁이’라 부르고, 늙은 누에처럼 말라서 늘어진 사람은 ‘누에늙은이’라 한다. 이들 가운데서 유별나게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사람은 ‘개미허리’이다. 몸매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바로 그 개미허리.

이처럼 뚱뚱한 몸과 빠빠한 몸에 시비를 거는 말에 이어, 키가 크거나 작음을 놀리는 말도 많다. 키가 무척 큰 사람을 흔히 ‘키다리’라고 한다. ‘억다리’, ‘장승’, ‘전봇대’ 따위도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더불어 키는 큰데 좀 멍청한 사람은 ‘얼대’라 놀린다. 본래는 충청도에서 쓰던 말인데 이즈막에는 ‘얼대갈다’는 식으로 널리 쓰인다. 또 키도 크고 목이 유난히 길지만 몸이 여위어 가냘팠 보이는 사람은 ‘거위명장’이라 한다. 이러한 말들에는 단지 키가 크다는 것뿐만 아니라 멧대거리 없는 사람이라는 뜻도 곁들여 있다.

이밖에 키와 몸집이 매우 큰 사람을 빗대어 ‘어간재비’라 부른다. 어간재비는 어떤 것들 사이에 칸막이로 둔 물건을 가리킨다.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칸막이가 될 정도로 몸집이 크다는 뜻이다. 그런데 어간재비보다 더 큰 사람도 있다. 바로 ‘천왕지팡이’이다. 하늘의 왕이 짙는 지팡이라니, 허풍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키다리에 상대되는 말은 ‘작다리’이다. 작달막하다는 뜻이다. 보통 사람보다 키가 훨씬 작은 사람은 ‘난쟁이’이다. 또 키도 작고 몸집도 작아 하찮아 보이는 사람을 ‘따라지’라 한다. 따라지는 하찮은 처지의 사람이나 물건을 속되게 이룰 때 두루 쓰이는 말이다. 예컨대 노름판에서 ‘삼팔따라지’는 세 곳과 여덟 곳을 합하여 된 한 곳으로, 가장 낮은 곳발을 뜻한다. 옛적에는 38선 이북에서 유행한 사람을 ‘삼팔따라지’라 부르기도 했다. ‘따라지 인생’, ‘따라지목숨’, ‘따라지신세’ 따위도 여기에서 나온 말들이다.

이밖에 키가 작고 마음씨가 웅졸한 사람은 ‘쫄쫄이’, 몸집이 작고 마음이 좁스러운 사람은 ‘좁팽이’라 이른다. 그런데 작다고 다 좁스러운 것은 아니다. 키는 짤막해도 옆으로 딱 바라져서 웬지 강단 있게 보이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얹얹보’라 부른다. 줄여서 ‘얹보’라 한다. 또 키는 작는데 배만 볼록한 사람은 ‘맹꽁이’라 놀린다. 더불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도 뚝하게 아무렇게나 생긴 사람은 ‘만무방’이라 한다.

몸집 생김새보다도 근육질이 일으키는 강약의 느낌에 따른 말도 있다. 덩치에 상관없이 몸이 허약한 사람은 ‘물렁이’라고 한다. 단단하지 않고 물렁물렁하다는 뜻이다. 살은 찢는데 막상 힘이 없는 사람은 ‘물통이’이다. 물렁이나 물통이는 걸만 봐서는 알기 어렵고, 힘쓰는 모양을 봐야 안다. 반면 걸보 기에도 잔약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은 ‘연생이’이다. 연생이보다 더 허약한 사람은 ‘앤생이’라 한다. 또 힘없어 보이고 물골이 추레한 사람을 가을에 알에서 깨어 시들한 병마리에 빗대어 ‘서리병마리’라 부르기도 한다. 약 보기에다 비쩍 마르거나 병약해 보이는 사람은 ‘사시랑이’이다.

걸으로는 무척 튼튼해 보이는데 속은 허약한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을 ‘헝쇠’라 한다. ‘헝 빈 쇠’에서 비롯된 말로 추측된다. 단단하고 야무지면서도 표독스러운 느낌을 풍기는 사람은 ‘대추방망이’라 부른다. 이에 비해 걸도 속도 야무진 사람은 흔히 ‘차돌’이라 한다. 그 가운데서 조금도 빈틈없이 여무지게 생긴 사람은 ‘모도리’이다. 차돌과 모도리는 몸집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을 말일 성싶다. 하지만 여성이 이런 변말로 불리고 싶지는 않을 터. 다행히도 몸매와 관련하여 여성이 듣기에 좋은 말이 있다. 바로 ‘마늘각시’이다. 살갗이 희고 몸매가 예쁜 여자를 이르는 말이다. 요새 말로 ‘우유빛깔 그녀’라 할 수 있다.

마늘각시 소리는 못 들더라도 깍짓동은 되지 않기 위해 ‘살과의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무작정 살을 빼려다간 몸을 망치기 쉽다. 살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운동 부족이나 영양과잉으로 생긴 살은 ‘군살’이다. 포동포동하면서도 건강미가 넘치는 살은 ‘참살’이라 한다. 또 운동으로 다져서 단단하고 야무진 살은 ‘대살’이다. 이에 비하여 물렁물렁한 살은 ‘무살’, 푸석푸석한 살은 ‘푸석살’이다. 또 살빛이 허며덜겅고 무른 살은 ‘두부살’이라 하며, 이를 낮잡아 ‘비젓살’이라고도 부른다.



참살이나 대살은 건강한 살이고, 무살이나 푸석살이나 비젓살은 주로 군살이다. 그 가운데서도 배를 에워싼 ‘헛살’은 당연히 퇴치해야 할 군살로 여겨진다. 우리 몸에 넘쳐서도 안 되지만, 없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살이다. 무작정 살을 빼려 할 게 아니라 군살을 잘 다스려 참살이나 대살로 만드는 것이 건강한 몸매를 가꾸는 일이다. 게다가 세상에는 살을 빼려고 애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살을 더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빼는 일보다 더하는 일이 어렵다는 사람도 있다.

사람의 몸집과 살에 대한 토박이말 가운데는 요새 기준으로 논란을 일으킬만한 것도 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제멋대로 생겼다. 뚱뚱이도 있고 훌쩍이도 있다. 키다리도 있고 작다리도 있다.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도 있다. 이른바 몸매에 대한 미적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다면 물통이와 대추방망이가 서로 잘났으며 무거운 큰 탈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몸이 상품화되고, 그에 대한 미적 기준이 획일화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대중적 상업매체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우리의 미적 감각마저 뒤틀어버린 까닭이다. ●

1 박남일 |

저술가, 우리말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한 우리말 풀이사전』 등이 있다.

겨레말큰사전

2016
01

누리판



우리말 보물찾기 · 우리말 돋보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뜻풀이 깊고 더하기

전문어 뜻풀이의 문제

· 박일환 / 영남중학교 국어교사, 시인

국어사전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뿐만 아니라 '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는 말인 전문어와 함께 인명, 지명 따위도 함께 실어놓았다. 그중에서 전문어의 뜻풀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전문어는 보통 <동물>, <건축> <음악>, <화학> 따위의 분류 항목을 설정해 놓고 있으며, 말 그대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쓰는 말이므로 일반인들이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다. 그럼에도 전문용어 사전이 아닌 국어사전이라면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풀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어사전에 실린 전문어들의 뜻풀이는 너무 불친절하다.

매니큐어를 지울 때 많이 쓰는 아세톤에 대해 알고 싶어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풀이해 놓았다.

아세톤(acetone) 「명사」 <화학> 카보닐기에 메틸기 두 개가 결합된 구조의 화합물. 독특한 냄새가 있는 무색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물이나 유기 용매에 잘 녹으며 인화성이 있다. 화학 실험이나 화학 공업의 용매로 쓰인다. 화학식은 CH₃COCH₃.

정작 궁금하게 여기던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고, 전문가들이나 이해할 법한 말만 잔뜩 늘어놓았다. 위 풀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카보닐기'나 '메틸기'를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데, 이들 낱말은 또 어떻게 풀어놓았을까? '카보닐기' 하나만 우선 찾아보기로 하자.

카보닐기(carbonyl기) 「명사」 <화학> 탄소와 산소가 이중 결합으로 연결된 이가(二價)의 원자단. 불포화 결합을 가지는 기(基)로, 반응성이 풍부하다.

이쯤 되면 짜증이 밀려들면서 더 이상 국어사전을 찾아볼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낯선 화학 용어 말고 친근한 식물 이름은 어떻게 풀어놓았을까? 낱말을 가리고 뜻풀이만 먼저 본 다음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생각해 보자.

작약과의 낙엽 활엽 관목. 높이는 2미터 정도이고 가지는 굵고 털이 없으며, 잎은 크고 이회 우상 복엽이다. 늦봄에 붉고 큰 꽃이 피는데 꽃빛은 보통 붉으나 개량 품종에 따라 흰색, 붉은 보라색, 검은 자주색, 누런색, 복숭아빛을 띤 흰색 따위의 여러 가지가 있다. 열매는 골돌과(蓇葖果)를 맺는다. 근피(根皮)는 두통·요통에 쓰는 약이나 건위제, 지혈제, 진통제의 약재로 쓰인다. 추위에는 강하나 더위에는 약하며 연평균 15℃ 이상의 따뜻한 지방에서는 발육이 부진하다. 인가나 화원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한다. 중국이 원산지이다.

무척 길고 자세하게 풀어놓았지만 무슨 식물에 대한 설명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일단 답부터 말하면 위 뜻풀이에 해당하는 식물은 '모란(牡丹)'이다. 국어사전은 백과사전이 아니다. 그렇다면 분명 서술 방법이 달라야 하는데, 마치 백과사전이나 식물사전을 보는 듯하다. 풀이에 나오는 '이회 우상 복엽'이나 '골돌과(蓇葖果)' 같은 낱말은 식물학자들이나 쓰는 말일 터이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필시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서 쓰던 걸 그대로 들여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에는 불교용어 하나를 살펴보자.

화엄경(華嚴經) 「명사」 『불교』 석가모니가 성도한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설법한 경문. 법계 평등(法界平等)의 진리를 증오(證悟)한 부처의 만행(萬行)과 만덕(萬德)을 칭양하고 있다. 정식 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이다.

제대로 불교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접근하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라면 대체 저런 식으로 뜻을 풀어서 어찌자는 걸까? 거듭 말하지만 국어사전이 백과사전이나 전문용어 사전을 흉내 내려는 까닭을 이해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관련 용어 몇 개의 뜻풀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오프라인(off-line) [명사] <컴퓨터> 단말기의 입출력 장치 따위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중앙 처리 장치의 직접적인 제어를 받지 아니하는 상태.

키워드(key word) [명사] <컴퓨터> 데이터를 검색할 때에, 특정한 내용이 들어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나 기호.

파티션(partition) [명사] <컴퓨터> 하나의 물리적 저장 장치를 논리적인 여러 부분으로 분할하는 것. 실제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이용을 간편하게 한다.

컴퓨터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컴퓨터 관련 용어들의 뜻이 번져서 일상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오프라인은 가상 공간이 아닌 현실 공간, 키워드는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 파티션은 사무실의 칸막이와 같은 뜻을 함께 지니고 있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은 오로지 컴퓨터와 관련된 뜻으로만 풀이를 해놓았다. 평상시에 자주, 그리고 쉽게 쓰는 말조차 전문어라는 틀에 너무 가워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문어의 뜻을 풀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풀이를 맡긴 다음 제대로 다듬지 않고 그대로 국어사전에 옮겨 놓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듯하다. 아무리 전문어라도 보통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풀어쓰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 박일환 |

1961년 생. 1997년 『내일을 여는 작가』로 등단하여 『꿨어진 현』, 『지는 싸움』 등의 시집을 냈으며, 우리말 관련해서 『미주알고주알 우리말 속담』, 『국어 선생님 잠든 우리말을 깨우다』, 『미친 국어사전』 같은 책을 썼다.

겨레말큰사전

2016 01

누리판



우리말 보물찾기 · 우리말 돋보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남녘말 북녘말

북녘 농촌공동체의 흥겨운 결혼잔치 풍경

— 오창은 / 중앙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문학평론가

남한과 북한은 동일한 민족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분리되어 있지만, 문자적 기원도 같다. 분단 70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같은 보다는 다름’이 커져가고 있다. 남한의 관점에 보자면, 북한의 언어가 ‘점점 이질화되어가고 있고, 특수한 변화과정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한의 언어가 보편적이고 북한의 언어는 특수하다는 인식은 편향적이다. 고유한 원형의 언어는 없다. 언어는 변화하기 마련이고,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선택한 길도 달라질 뿐이다.

남한 언어의 관점에서 북한 언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호성의 관점에서 남북의 언어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은 서로를 ‘향해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갈아야 한다는 과도한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남선 북한의 언어’를 그대로 접하고, 존재하는 자체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학 작품은 남북이 서로의 언어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원자료이다. 그 시대의 언어의 정점은 문학작품에 담겨 있다. 문학작품의 언어는 현장언어이면서, 외부를 상상하지 않는 내부의 언어이다. 최근 흥미롭게 읽은 작품이 ‘내 고향은 아름답다’이다. 김홍균이 쓴 이 작품은 북한을 대표하는 문학잡지인 <조선문학> 2009년 12월호에 실렸다.

작가는 이른 겨울 아침, 귀남미와 귀향이 오누이가 집을 나서는 풍경을 제시한다. 이 날은 귀향이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다. 온 마을이 잔치를 벌이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동네 아이들까지 나서서 눈사람을 만들어 《축》자를 붙이고 환호할 정도로 온 동네가 떠들썩하다. 귀남미와 귀향이 오누이는 결혼식 당일인데도 서둘러 일터로 나선다. 농장의 작업반 일을 서둘러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농장적인 휴식일이지만 니탄캐는 막개펄이 협소하여 작업반에서는 캐놓은 것을 제때제때 뽑아낼섬으로 대휴제작업조직을 했다. 작업반에 배속된 트랙도르를 분조마다 돌려가며 리용했는데 공교롭게도 귀향미네 분조가 오늘 차려였다. 분조원들이 결혼식을 못 보게 됐다고, 하필이면 분조장의 결혼식날에 차려가 올건 뭐냐고 서운해했다.

인용문에 등장하는 ‘니탄’은 ‘이탄(泥炭)’을 말한다. 남한에서는 ‘토탄(土炭)’이라고도 한다. ‘니탄’은 탄화 작용이 충분히 되지 않은 석탄의 일종이다. 발열량이 적으며, 비료나 연탄의 원료로 쓰인다. ‘대휴’는 ‘쉬는 날’ 일을 한 대신 쉬는 날’을 지칭한다. 인용문은 대휴 날에도 ‘트랙도르(트랙터)가 배당되어 일을 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2009년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고통을 받던 시기였다. 개펄을 비료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애쓰는 농장의 상황이 비교적 소상히 ‘내 고향은 아름답다’에 그려져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 언어에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남한에서는 ‘이탄’으로 쓰는 것을 ‘니탄’이라고 하고 있다. ‘이용’도 ‘리용’으로, ‘노인’도 ‘로인’으로 적고 있다. 이러한 표기의 차이는 남과 북의 어문규정의 차이 때문이다.

소설 속 신부인 귀향의 결혼 상대는 오철운이다. 오철운은 “부상을 입고 돌아온 영예군인”이다. 북한의 영예군인은 남한에서는 ‘상이군인’에 해당한다. 북한에서는 영예군인을 “군사복무기간 부상을 입고 제대하여 국가적 배려를 받는 사람”이라고 해설한다. 오철운은 ‘삼훈차에 몸을 싣고 움직여야 할 정도로 군복무 중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귀향은 고향마을인 인봉리의 빼어난 규수로, 어느 집에서나 욕심을 가져보는 신부감이었다. 그런 그녀가 영예군인과 일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 소설은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 분조장인 귀향과 영예군인인 오철운의 결혼을 축하하는 풍경을 그리고 있다. 평소 술 때문에 말썽을 일으켰던 학술이가 나서서 생화를 구하는 일을 훌륭하게 한 것이나, 말에 거침이 없던 장안순이 신방 장식을 훌륭하게 해낸 일, 모두 한 몸이 되어 니탄 생산에 열심인 분조원들의 상황까지 활기 넘치게 제시한다. 잔치를 여는 마을 풍경답게 공동체적 일체감이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흥미로운 전개를 보인다.



신혼집 풍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머데선거 꾸꾸- 거리는 닭울음소리가 들렸다. 리당비서가 사위를 두릿거리다 짐작이 가는게 있어 마당 한구석의 새 닭장으로 다가갔다. 장문을 열자 꼬꼬맥! 하는 급한 소리와 함께 두마리의 닭이 뉘를 치며 날아나왔다.

《에쿠!》

한발 뒤로 물러서면서도 자못 즐거워 싱글거렸다.

《별써 새 주인이 입사하셨구만.》 그옆 토끼우리앞에 다가선 관리위원장도 우리안의 살한 엄지토끼를 보며 웃었다.

이번엔 오철운이네 집으로 가보자며 대문밖을 나서는 그들의 발치에 목사리를 한 하얀 강마지가 쾅쾅 감겨들었다.

영예군인의 신혼집에 마을 사람들은 부조하는 마음으로 장작을 패어주고, 닭을 갖다 놓는가 하면, 엄지토끼와 하얀 강마지까지 가져다 놓았다. ‘엄지토끼’에서 ‘엄지’는 “다 자라서 새끼나 알을 낳을 수 있는 짐승”을 일컫는다. 그리고 ‘목사리’는 “소나 개 같은 짐승의 목에 두르는 가죽으로 만든 띠나 줄”을 지칭한다. 작가는 오철운과 로귀남의 결혼식을 위해 온 동네가 나선 것을 흥겨운 정취로 묘사해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사람만이 아름다움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다.

‘내 고향은 아름답다’는 한 마을의 결혼식 풍경을 세밀하게 그리면서, 북한의 농촌 인정이 펼쳐져 있어 인상적이다. 공동체적 인정이 살아 있는 전근대 사회의 풍경을 보는 듯하다. 경쾌한 필치로 ‘노동과 사랑’의 조화를 그려낸 작가의 필력도 만만치 않다. 이 작품의 주제는 부상을 입고 제대한 영예군인의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건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고향 마을에 대한 정감어린 풍경을 형상화하고 있어 문학적 성취를 일궈냈다.

결혼식 당일날까지 말은 바 일을 해내야 하는 급박함이 소설 곳곳에 드러나지만, 잔치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 합심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남북의 언어적 차이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특이한 언어로는 ‘송마지동무’ ‘팔랭이’ ‘세판다’ ‘시까스룬다’ 등도 거론할 수 있다. ‘송마지동무’와 ‘팔랭이’는 ‘소꿉동무’와 ‘말팔랑이’를 말하고, ‘세판다’는 “성질이나 기세가 세다”의 의미이다. ‘시까스룬다’는 “남의 비위를 상하게 놀리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소설 전체 서사에 대한 독해를 방해하지는 않는다. 약한 자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 마을 공동체의 인정이 남과 북을 아우르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자아낸다. 남북의 언어의 차이는 세심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남북의 인간적 심성의 차이로까지 확대하여 과장할 필요는 없다. 인간의 정(情)은 어디에나 따뜻한 온기로 흐르고 있다.



ㅣ 오창은 ㅣ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교수, 문학평론가. 2002년 <경향신문> 신춘문에 문학평론 부문 당선. 지은 책으로 『비평의 모형』, 『모욕당한 자들을 위한 사유』, 『절망의 인문학』이 있다.

남녘말 북녘말 [어색한 말 보기](#) >

겨레말큰사전 사업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2016년에도 뜻하시는 일들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PDF인쇄 | 지난호보기

겨레말큰사전 2016 01

누리판



우리말 보물찾기 · 우리말 돋보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남녘말 북녘말

어색한 말

박지용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지난 10월 말 연변대학교와 「2015동북아협력포럼」을 진행하기 위해 연길을 다녀왔다. 안내하는 분이 조선족이었는데 “일정이 긴장돼서 거기는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안내원이 “한국 드라마를 매일 보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사람들은 북쪽과 말이 매우 비슷합니다.”라고 덧붙인다.

북쪽 사람들은 ‘긴장’이라는 명사를 남쪽에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 주로 ‘긴장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물론, 오징어나 낙지처럼 같은 대상을 두고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오히려, 남쪽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이 조일 때는 ‘긴장’보다는 ‘떨었구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다. 자주 북쪽 사람들과 교류협력 사업 협의를 위해 접촉했고, 접촉할 때마다 북쪽 사람들이 ‘긴장됩니다?’ 또는 ‘사업이 긴장된다’는 말을 들으면 협의하고 있는 사업의 성사 여부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중에도 어색한 느낌이다.

‘긴장’과 비슷하게 사용할 때 어색한 단어가 ‘조직’이다.

남쪽과 달리 북쪽은 무슨 일을 하든지 ‘조직한다’라고 자주 표현한다. 남쪽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처럼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개체나 요소를 모아서 체계 있는 집단을 이룸.’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한다. 물론, 북쪽도 사회적 집단이나 기구를 짜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앞으로 할 일을 짜고 드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가 많다.

얼마 전 북쪽에서 유명한 모란봉 악단이 중국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첫 해외 공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공연 시간 3시간 전에 돌연 취소한 적이 있다. 당시 관영 신화통신은 “공작(업무) 측면에서 서로 간의 소통 연결에 원인이 있다.”라고 밝혔다. 북쪽 표현대로 하면 “조직(업무) 측면에서”라고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준비 과정에서” 또는 “추진 과정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리라.

“사업을 조직하는데 긴장됩니다.”라는 북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 어색하다.

그래도 말과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에 같은 민족으로 공동의 역사를 가지고 같은 말로 대화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다.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면 과연 민족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요즘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젊은 세대의 열어진 동족의식, 통일의식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다. 남쪽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조사 결과 후에는 우리 언론과 전문가들이 머김없이 걱정을 토로한다. 북쪽을 바라보는 우리 청소년들의 시선도 우리 어른들이 같은 동포로 한 민족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우리와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북쪽 청소년들의 경우도 어떤 이유에서건 동포애와 민족애라는 감정만으로 남쪽과 남쪽 사람들을 생각하지는 않으리라고 짐작한다.

문제는 남북 청소년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현재와 같은 감정과 태도로는 통일을 이루어서 반드시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상대를 거북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일이다. 분단을 일상으로 여기고 살아도 된다고 믿게 되는 일이다. 분단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고,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현상을 변경하는 특별한 일이 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남쪽의 어른들도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요즘은 북쪽의 어른들도 이런 문제로 ‘긴장’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 같다.

최근 개성에서 업무 차 남북 민화협 사이에 몇 차례 접촉이 있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는 머김없이 음식 이야기, 술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 남이나 북이나 명태는 모두가 즐기는 생선이다. 그런데 한때 국민 생선이었던 명태가 동해안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명태살리기 프로젝트」까지 진행 중이다. 며칠 전에 개성에서 같이 식사하는 중에 명태조림이 나왔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북쪽 사람들에게 명태가 잘 잡히느냐고 물어보니 북쪽도 요즘 명태가 잘 잡히지 않는단다. 그러면서 올해는 도루메기가 정말 많이 잡힌단다. 명태가 도루메기 새끼나 낙지류의 알을 먹기로 삼는데 명태가 사라지니 도루메기가 풍년일 수밖에……. 도루메기를 남쪽에서는 도루묵이라고 부른다. 그날 개성에서 만난 남북의 사람들은 금강산 삼일포에서 도루메기 구이에 막걸리를 한 잔씩 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야말로 남북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 같이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왕 명태 이야기가 나왔으니 덧붙이자면 맥주 안주로 자주 먹는 마른 명태포를 북쪽에서는 ‘탈피’라고 부른다. 남쪽에서는 맥주 안주로 명태 새끼인 ‘노가리’를 많이 찾는데, 북쪽에서 ‘노가리’는 농사짓는 방법의 한 가지다. ‘탈피’라는 명사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같은 뜻인데 북쪽에서는 ‘껍질을 벗긴 마른 명태’라는 뜻으로도 널리 쓰인다.

처음 방북했을 때 북쪽 사람들이 ‘맥주 한 고뿌(Cup)에 탈피’ 달라는 말이 참 어색했었다. 된장국도 그렇다. 북쪽에서는 집에서 담근 된장을 ‘토장’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집에서 만들건 공장에서 만들건다 ‘된장’이라고 부르고, ‘토장’이라는 말은 이제 잘 사용하지 않지만, 북쪽에서는 ‘된장’과 ‘토장’을 구분하는 것 같다. ‘장 담그기’는 우리 민족이 함께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 메주를 쑤어서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드는 것은 같은데, 된장으로 끓인 국을 북쪽은 주로 토장국이라고 한다. 오래전 첫 방북 때 단고기를 즐기지 않는 내가 된장국을 달라고 하자 잘 못 알아들었던 북쪽 안내원 선생님의 얼굴이 아직도 선하다.

그래도 어느 해인가 “한 잔에 명태포 달랍니까?”라는 북쪽 접대원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던 적이 있었다. 북쪽 접대원 선생 입장에서야 남쪽 손님들을 배려해서 사용하는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배려보다는 같은 언어를 함께 사용하다 보니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순간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 기분이 색달랐던 기억이 있다.

긴장과 조직이라는 말의 쓰임새가 다르고, 노가리면 어썩고, 탈피면 어떠랴. 된장국이면 또 어썩고, 토장국이면 또 어떠랴.

서로 부대끼고 자주 만나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해결될 일이다.

어색함은 한순간이다.

남북의 더 많은 사람이 자주 만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통일로 가는 길에 ‘만남’이 중요하다.

박지용 |

다양한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에 참여했고, 통일교육협의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등을 거쳐 현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녘말 북녘말 북녘 농촌공동체의 흥겨운 고향잔치 풍경 보기 >

겨레말큰사전 사업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2016년에도 뜻하시는 일들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PDF인쇄 | 지난호보기

겨레말큰사전

누리판

2016
01



우리말 보물찾기 · 우리말 돋보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겨레말 소식

제25차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회의 개최

지난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제25차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회의를 개최하였다.

홍종선 남측편찬위원장과 문영호 북측편찬위원장 등 총 38명의 남북 편찬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올림말 집필 원고 24,076개를 검토하였으며, 이 중 19,799개의 원고를 합의하였다.

또한 <<겨레말큰사전>> 양측 위원회는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위원회 결성 10주년을 기념하여 <<겨레말큰사전>> 편찬 지속 등 민족어의 통일과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겨레말큰사전>>에 올릴 총 33만여 개 어휘 중에서 12만 5천여 개의 원고를 합의하였다.



▲ 2015년 12월 6일~13일 진행된 제25차 공동편찬회의(중국 대련)

겨레말큰사전 사업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2016년에도 뜻하시는 일들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PDF인쇄 | 지난호보기

겨레말큰사전 누리판

2016
01



우리말 보물찾기 · 우리말 돋보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겨레말 소식

사전 편찬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 개최

사업회는 지난 12월 17일 국어사전 편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전 편찬 전문가들로부터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사전 편찬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김선철(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과장), 도원영(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안상순(전 금성출판사 사전팀 팀장), 이대성(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이정미(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상담실장), 정희창(성균관대 국문과 교수) 등 사전 편찬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도원영 교수는 “뜻풀이 작업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하며, 특히 은유적 표현은 뜻풀이 어휘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사업회에서 미리 제공한 《겨레말큰사전》 새어휘 원고를 검토하여 뜻풀이와 용례 개선 방안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사업회는 이번에 제시된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겨레말큰사전》 집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겨레말큰사전 사업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2016년에도 뜻하시는 일들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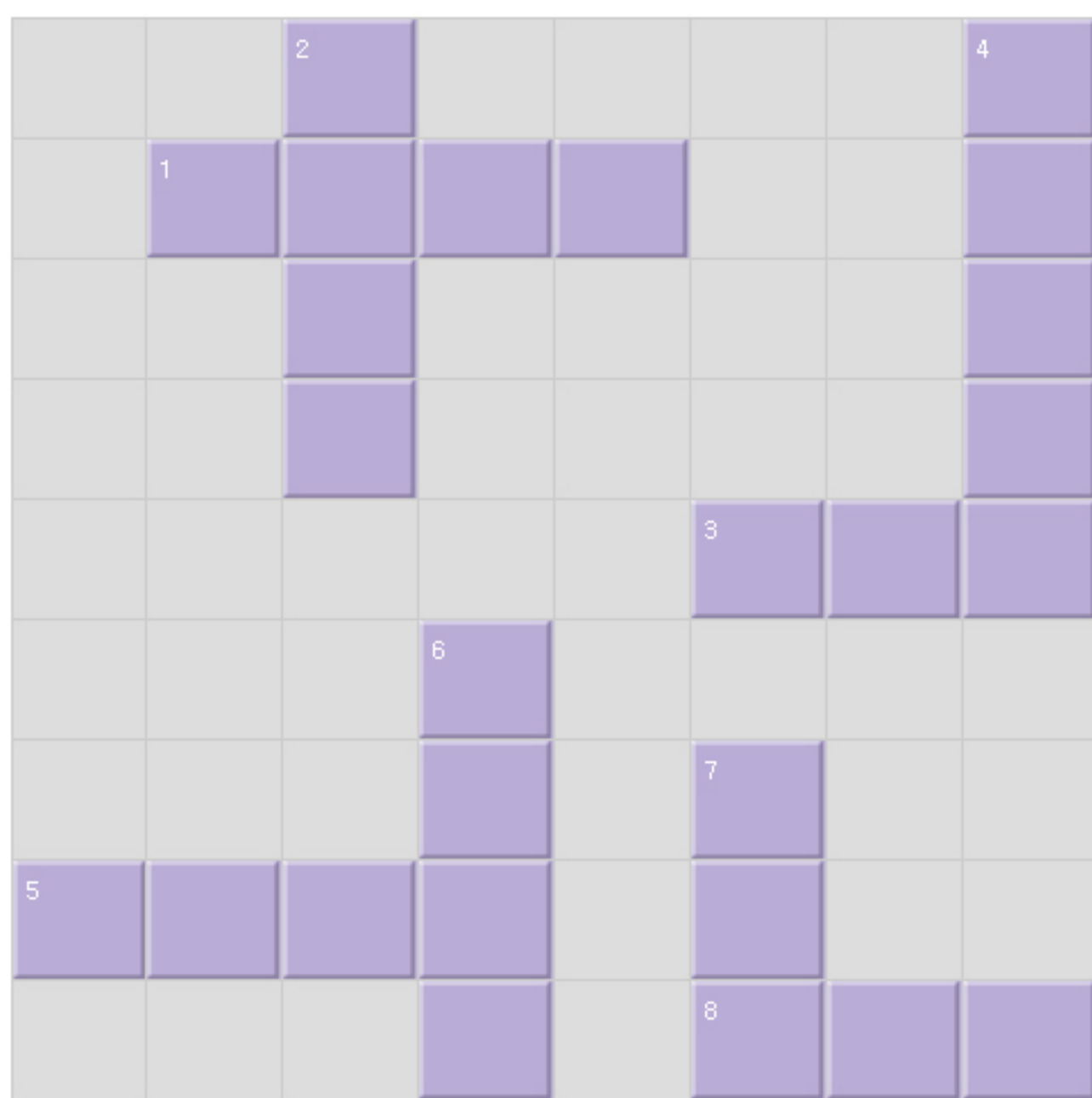
겨레말큰사전 2016 01

누리판



우리말 보물찾기 · 우리말 돋보기 · 뜻풀이 킵고 더하기 · 남북말 북녘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겨레말 낱말 풀이



- ① '돌풍'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갑자기 세게 불기 시작하였다가 얼마가지 않아 점차 약해지는 바람."을 뜻한다.
예) 이 밤에 태풍이 불수도 있고 ○○○○이 불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② 북에서 '돌연변이'를 다듬은 말로, "미려저러한 원인에 의하여 유전물질이 변이된 결과에 생물체들에서 선조에 없던 형질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유전되는 변이."를 뜻한다. 갑작○○.
- ③ '골키퍼'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축구, 송구, 수구와 같이 문이 있는 경기에서 문을 지키는 선수."를 뜻한다.
예) ○○○는 몸을 도사리고 공을 향하여 날아들가 말가 하며 뒤걸음쳤다.
- ④ '물구나무서기'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체조동작의 하나. 기재우 또는 양바닥에 팔을 짚거나 머리, 어깨, 가슴을 대고 거꾸로 서는 것"을 뜻한다. ○○○서기.
- ⑤ '멀리뛰기'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육상경기의 한 가지. 일정한 금에까지 달려가 한발을 굴러서 먼 거리를 뛴다." 너비○○.
예) 높이뛰기와 ○○○○.
- ⑥ 북에서 '가감법'을 다듬은 말로, "더하기법과 덜기(빼기)법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뜻한다. ○○○법.
예) 은마는 유치원에 들어가자마자 ○○○○을 곧잘하며 칭찬받곤 한다.
- ⑦ '라디오'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방송국에서 무전으로 보내는 방송을 듣게 만든 기구."를 뜻한다. ○지○
예) 초막 안에서는 정호가 틀어놓았는지 ○○○ 음악이 흘러나왔다.
- ⑧ '스크랩북'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신문이나 잡지 같은데서 필요한 기사나 자료를 따내여 한데 모아엮는 것 또는 그렇게 하여 만든 책."을 뜻한다. 오림○.
예) 갖가지 ○○○을 만들어 찾아볼 수 있게 하다.

